<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⑱>

우리나라 노동분야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과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에서는 매년 국가경쟁력을 조사하여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노동분야 항목을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분야 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음.

【WEF 보고서의 노동부문 경쟁력】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는 매년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음.

○ 동 보고서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등 3개 분야, 12개 부문에서 총 114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노동에 관련된 항목은 **효율성 증진〉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에 86위, 2015년에 83위를 차지하여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노동분야 주요 항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보수 및 생산성 24위,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이 35위 등 몇몇 항목이 중위권에 들어 있으나 노사간 협력 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 115위, 정리해고 비용 117위 등 최하위권에 속한 항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항목	순위	
	2014	2015
노사간 협력	132	132
임금결정의 유연성	58	66
고용 및 해고관행	106	115
정리해고 비용	120	117
근로유인에 대한 과세의 효과	113	99
보수 및 생산성	36	24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49	37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23	25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	28	35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1	91

【IMD보고서의 노동부문 경쟁력】

○ IMD에서도 지난 1989년부터 매년 5월 60여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세계경쟁력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2015년에 우리나라는 총61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해 WEF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IMD의 보고서는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성, 기업경영 효율성, 발전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314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순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개 중간부문 가운데 고용부문은 6위를 차지했으나 기업관련 법규는 45위, 생산성 및 효율성은 38위, 노동시장은 35위, 교육은 32위 등으로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렀음.

○ 35위를 차지한 노동시장의 항목 순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9위, 우수인재 우대정도가 13위로 비교적 상위에 놓여 있는 반면, 노동규제는 58위, 노사관계는 57위, 근로자 동기부여는 54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국제비교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인적 자본과 노동시간 등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으나 노사협력이나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은 물론 모든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

○ IMD의 조사경과에서 기업의 채용 및 해고의 자율성 등 노동규제와 관련한 지표들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함. WEF 조사에서도 채용 및 해고의 유연성은 최하위권에 속하고 특히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는 IMD와 WEF 모두 최하위권임.

○ 종합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수에 의해 나타나는 정도보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체감하는 노동관련 법제도의 유연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동분야 경쟁력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참고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15.05.27. & 2015.09.30.